

“이렇게 많은 사랑 받을 줄이야...얼떨떨”

로맨틱 젊은 정조 열연 여심 홀릭 시청자들 “역대 가장 섹시한 정조” 처음엔 부담...최수종 선배가 큰 힘 2PM은 뿌리...가수도 열심히 할 것

아이돌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32)에게는 별명이 있다. ‘이폭스’. 여우(Fox)처럼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며 팬들이 붙여준 수식어다. 그가 이번에는 안방극장을 제대로 뒤흔들었다. 1일 종영한 MBC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궁녀 이세영을 사랑하는 젊은 정조를 연기해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30~40대 여성 시청자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덕분에 좀처럼 10%를 넘기 어려운 안방극장에서 드라마는 17.4%(닐슨코리아)의 시청률까지 상승했고, 이준호는 지난해 연말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3일 화상으로 만난 이준호는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다”고 얼떨떨해했다. 그는 “‘입급’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극중 대사를 수없이 돌이키며 육신을 비웠는데 결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 “정조 역에 부담감 확”

앞서 이서진(MBC ‘이산’), 현빈(영화 ‘역린’) 등 수많은 스타가 작품에서 정조역을 거쳤다. 이준호는 “친구 어머니께서 ‘당대 최고의 스타만이 정조 역을 맡는다’는 농담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부담이 더 컸겠다”며 캐스팅 당시를 떠올렸다.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최수종 선배의



배우 이준호는 1일 종영한 MBC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에 대해 “아직도 여운이 짙게 남는 작품”이라며 “촬영 현장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동료들과 제작진 덕분에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과거 인터뷰를 봤어요. 수많은 왕 캐릭터를 맡아서 ‘왕 중의 왕’으로 불리는 선배도 처음에는 ‘우리의 시선을 받았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인식을 쌓아보자고 용기를 냈어요. 제가 전주 이(李)씨라서 어떻게 보면 조상을 연기한 셈인데요,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역대 가장 섹시한 정조’로 불린다. 궁녀 이세영과 키스신과 합방 장면까지 찍었다. 가슴부터 복근까지 ‘짹’ 갈라진 ‘식스팩’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는 장면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섹시돌’ ‘짐승돌’의 멤버라는 사실을 세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연출자 정지인 PD님부터 파트너

(이)세영이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수위가 어디까지일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상파 드라마에서 어찌 ‘19금 장면’을 찍겠습니까. 하하! 섹시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서 시청자가 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 “시상식서 소감 말하는 꿈 이뤄”

이번 드라마로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는 꼬리표는 완벽히 떼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준호는 “평생 그 편견이 따라온다고 해도 신경 안 쓴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돌 출신의 편견이나 시선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 칭찬을 받으면 ‘아이돌치고 잘한다’는 의미일까? 싶어 마냥 좋아하지 못한 적도 많았죠. 지금은 제가 열심히, 잘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걸 잘 알아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맡은 배역에만 몰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기대상은 “어린 시절 자주 꿔던 꿈”이다. 꿈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현실로 만들었다. 2017년 KBS 2TV ‘김과장’에서 만난 남궁민과 대상을 놓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주변에서 유력 대상 후보였는데 어렵지 않냐고 물어요. 전혀요! 남궁민 선배와 이름이 함께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선배가 ‘자식, 연기 정말 잘하네’라며 칭찬해주셔서 기뻛어요.”

앞으로도 2PM으로, 배우로 무대와 촬영 현장을 부지런히 오갈 예정이다.

“2PM은 제 뿌리에요. 연기할 때는 ‘배우 이준호’가 되고요. 어떤 모습이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해 갈 겁니다.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SMCU 익스프레스’ 판매 41만장 돌파

SM엔터테인먼트의 시즌 앨범이 41만장 판매고를 올렸다. 4일 SM엔터테인먼트는 “시즌 앨범인 ‘2021 윈터 에스엠타운:SMCU 익스프레스’(2021 Winter SMTOWN:SMCU EXPRESS)가 발매 8일 만인 전날 기준 음반 판매량 41만6494장을 기록했다”면서 “SM타운 앨범 역대 최고 판매량”이라고 밝혔다. ‘SMCU 익스프레스’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SM타운 겨울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빛’ ‘드림스 컴 트루’ 등 10곡이 실린 음반에는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NCT, 에스파 등이 참여했다.

넷플, 전도연 주연 ‘길복순’ 제작 확정



전도연

배우 전도연·설경구가 영화 ‘길복순’의 주연으로 만난다. 4일 넷플릭스는 “전도연과 설경구·이솜·구교환 등이 ‘길복순’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는 내용이다. 전도연은 킬러와 싱글맘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길복순을, 설경구는 길복순의 스승이자 그가 소속된 청부살인업체 대표 차민규를 연기한다. 이들은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생일’(2019)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춘다. 이솜과 구교환은 각각 차민규 동생 차민희, 실력 좋은 킬러 한희성 역을 맡는다.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 등을 만든 변성현 감독이 연출한다.

박나래 “열애설 사실 아냐...남친 없다”



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4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비연예인 남성과 6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지난해 12월25일 배우 이시연의 결혼식에서 그가 부케를 받은 사실이 회자되면서 결혼을 앞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이에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 이성친구가 워낙 많아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하고 있다.

김나운·소속사 1억원 상당 마스크 기부



김나운(오른쪽에서 두번째)

배우 김나운이 선행을 펼쳤다.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나운과 소속사 율박스&서울 양천구청에 1억원 상당의 마스크 41만7000여 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 지역 방역취약계층 주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인다. 김나운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날씨를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운은 1987년 MBC ‘별난 학교’를 통해 데뷔해 KBS 2TV ‘위험한 약속’, ‘태양의 계절’ 등에 출연했다.

김원희·홍현희 채널A ‘신랑수업’ 진행



김원희

홍현희

방송인 김원희와 개그우먼 홍현희가 이달 중 첫 방송하는 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신랑수업)의 진행자로 나선다. 4일 채널A는 “김원희와 홍현희가 ‘신랑수업’ MC를 맡는다”면서 “이들은 각각 결혼 18년차와 4년차로서 ‘워너비 신랑’을 꿈꾸는 출연자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건넬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가수 이승철·김준수·영탁, 배우 김찬우가 ‘신랑수업’을 받으며 이상적인 남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진 “BTS 잠옷이 12만원이라니...나도 놀랐네”

(BTS 멤버)

웹툰·웹소설·애니·NFT·잠옷까지 소속사 문어발식 확장에 팬들 불만 지나친 상술...불매 ‘해시태그’ 등장

“무슨 가격이... 나도 놀랐네.” 방탄소년단(BTS)의 팬덤인 ‘아미’가 소속사 하이브의 지나친 상술로 들끓고 있다. 최근 하이브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팬들을 겨냥한 고가의 가격 책정에 불만과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4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 샵을 통해 ‘평소 캐릭터 잠옷을 즐겨 착용하는 멤버 진의 취향이 반영된 상품으로, 타이탄(방탄소년단 캐릭터) 진 캐릭터를 천사와 악마 버전으로 개발했다’며 잠옷을 출시했다. 두 가지 버전의 잠옷은 각각 11만9000원, 베

개 6만9000원이다. 이날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모두 품절됐다. 하이브는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전날 진이 제작에 참여한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샀다. 하지만 고가의 잠옷으로 인한 팬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제품 가격이 공개되자 일부 팬들은 유명 브랜드나 실크 등 고급 소재가 아닌 면 잠옷에도 불구하고 12만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자 멤버 진도 위버스를 통해 “잠옷 좋은 소재 써 달라고 했지만 무슨 가격이...나도 놀랐네”라며 가격 책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팬들은 “소속 가수의 음악과 무대에 충실해도 부족한 회사가 지나친 부대사업에 몰입하고 있다” “음악 기획사와 잠옷은 정

말 매치가 되지 않은 MD상품이다. 이러다 속옷 사업까지 진출 하겠다” “해도 해도 지나친 상술이다”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이브는 앞서 다양한 사업 진출을 선포하며 부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까지 진출했고, 특히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자 팬들이 반발했다. 일부 팬들은 환경친화적 메시지를 내온 BTS의 이미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NFT가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는 반응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팬들이 소외되거나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고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하이브의 NFT 사업에 반대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팬들의 반



그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고가의 MD상품을 판매해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 샵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잠옷을 소개하는 멤버 진과 현재 11만9000원에 판매되는 문과 빛을 받고 있는 면 소재 잠옷(왼쪽부터). 뉴스스

응과 함께 트위터 등 SNS에서 하이브 상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각종 SNS에서는 #BoycottHybeNFT(하이브 NFT 불매), #ARMYsAgainstNFT(아미는 NFT에 반대) 등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절친’ 뷔-최우식 ‘그해 우리는’ 쌍끌이

최우식 첫 주연...덤벼 캐릭터 압권 뷔, OST 참여...해외서 큰 인기몰이

세계를 휘어잡은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배우 최우식이 SBS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인기를 쌍끌이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그해 우리는’은 최우식이 2017년 ‘더 패키지’ 이후 4년 만의 안방 복귀작이자 첫 주연 드라마이다. 그는 2019년 영화 ‘기생충’ 이후 이번 드라마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는 헤어진 연인이 고등학교 시절

활영한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부상하면서 펼쳐지는 청춘들의 첫사랑 로맨스를 그린다. 극중 자유분방한 건물 일러스트레이터 최우역을 맡고 능력은 있지만 덤벼거리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제 몸이 꼭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절친’인 방탄소년단의 뷔까지 소매를 건어붙였다. 뷔와 최우식은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박서준, 박형식 등과 함께 ‘우가 패밀리’라는 별칭의 모임을 만들고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뷔는 최근 드라마 OST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를 발표하면서 드라마의 관심을 국내외에서 끌어올리는데 원



뷔

최우식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드라마 첫 화에서부터 최우(최우식)의 작업실 LP곡으로 등장했고, 드라마 곳곳에서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해외 반응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과 동시에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공개해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4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드’에 따르면 드라마는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2위 등 동남아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3위다.

OST에 대한 성과도 이어진다. 이날 영국 오픈셜 차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픈셜 싱글 세일즈 차트(Official Singles Sales Chart)와 오픈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Official Singles Download Chart)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솔로가수가 세운 최고의 기록이다.

영국 오픈셜 차트는 BBC 라디오가 발표하는 인기 팝차트로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양대 차트다. 뷔는 그룹이 아닌 솔로로 또 한 번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 됐다.